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론, 6차 세션, 현대 그리스도론, 1부, 칸트, 슬라이어마허, 리트 술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6, 현대 그리스도론, 1부, 칸트, 슬라이어마허, 리출입니다.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론에 대한 더 많은 배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대 그리스도론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자유주의적 개신교. 19세기는 유럽에서 개신교 자유주의에 속했습니다.
북미, 특히 미국에서 자유주의 시대는 20세기 중반에 시작되었고 유럽보다
늦게 끝났습니다.

그곳에서, 그 쇠퇴는 1차 세계 대전의 시작과 칼 바르트의 명성 상승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북미에서 자유주의는 대공황과 유럽에서 유입된
신정통주의 사상의 희생양이 된 1930년대에 번성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측에서 그리스도론은 불화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그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도 많지 않았습니다.

종교 개혁 신학을 반박하고자 했던 트론티 공의회(1545-1563)는
그리스도론에 대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반종교 개혁 시기에 가톨릭 신학자들은 단지
이전의 사상 학파를 반복하고 다듬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1890-1910년의 가톨릭 근대주의의
폭발이었습니다. 근대주의자들은 항상 그들과 자유주의적 개신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자유주의에서 유행하던 많은

사상을 재현했습니다. 이 운동은 진압되었지만, 적절한 간격을 두고 일부 동일한 사상이 1962-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수용되었고, 가톨릭 정통주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19세기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 자유주의와 가톨릭 근대주의에서 그리스도론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두 운동 모두 본질적으로 변증주의적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근대성이 기독교를 지나치고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지지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구식이 아니라 교리적 포장인 구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술라이어마허는 그의 용어인 교양 있는 멸시자들과의 합의를 추구했는데, 이는 공통된 교리적 합의가 아니라 공통된 의식의 내적 핵심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종교로 식별할 수 있었고, 기독교적 요소들의 혼합물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은 그것이 형성된 문화에 의해 형성되었고, 따라서 술라이어마허가 말한 신앙의 종류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강의 시리즈의 첫 번째 서론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원한 아들로 시작하여 사람이 된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사람인 예수로 시작하여 결코 위에 도달할 수 없는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을 구별해야 합니다.

또는 같은 것을 말하는 다른 방식으로, 신과 창조된 질서 사이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그리스도론, 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으로 창조에 들어오거나, 신과 창조된 질서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그리스도론,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지만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국 가톨릭 근대주의의 예언자 조지 타이렐은 그들의 전략이 신앙과 근대성 사이의 종합을 창조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는데, 그 안에서 두 가지 모두에 본질적인 것이 보존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을 이해하려면 신앙이 동맹을 맺고 있는 근대성의 본질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9세기 의식의 형성에 핵심이 되는 적어도 세 가지 광범위한 충동이 있었는데, 이는 계몽주의에 의해 물려받은 것입니다. 첫째, 반권위주의적 편견, 둘째, 인간 자율성의 출현, 셋째, 내면의 의식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첫째, 반권위주의적 분위기는 물론 여러 형태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반성직주의와 성경에 대한 불신은 더 중요한 것들 중 하나였다. 성경과 교회는 모두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위해 제거되어야 할 오래된 질서의 일부로 여겨졌다. 이것은 토마스 페인과 같은 지식인들에 의한 기독교 신앙의 조롱을 낳았고, 유럽에서는 교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의미의 원천으로서의 교회 대신 경험적 세계가 대체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헤겔과 같은 형태, 책에서 역사로, 프로이트와 같은 인간 본성으로, 다윈과 같은 자연 세계로 등 여러 형태를 띠었습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가치는 중세와 종교 개혁 유럽에서 유행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영역 외의 영역에서 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동시에 두 가지가 인간의 자율성의 출현이었습니다. 세상의 삶에 대한 해석은 이제 교회나 성경이 아니라, 도움받지 않는 인간 해석자의 관점에서 추구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데카르트에 따르면, 세상에서 확실한 유일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해석자였다. 그는 다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심의 과정이 끝났을 때, 한 가지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의식이었다.

그때 인간의 의식 속에서 통합의 지점이 모색되었고, 그 지점에서 경험의 다양한 모든 요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성경과 교회와 같은 외적인 권위에서 해석자의 권위로의 변화는 내면의 의식에 대한

정교한 논의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의 신성함과 불가침성은 완전히 다른 두 방향에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칸트는 합리주의자들이 유지했던 이성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렸고, 19세기에 프로이트는 의식의 순수함과 단순함에 대한 확신으로 흔들렸습니다. 물론 칸트의 주장은 이성이 감각적 지각의 흐름과 결합해서만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감각이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알 수 없으며, 우리가 아는 것을 존재하는 것과 직접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은 감각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지각되는 대상과 그 대상이 사람에 의해 지각되는 것 사이에 개입됩니다. 그것은 선별 장치이며, 그 이유는 그 기능이 감각적 지각을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칸트 철학의 결과는 엄청났지만, 신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경험주의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 또는 이성에 의해 의미로 구성되고 세상에 부과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후자의 한 예는 원인과 결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만 세상으로부터 경험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감각은 사물 간의 관계를 알 수 없으며 크기, 모양, 질감, 위치와 같은 경험적 특성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칸트의 후속작에서 방금 논의한 것은 순수 이성에 대한 그의 비판이었습니다. 이제 *실천 이성 비판*에서 그는 어떤 형태로든 기독교 윤리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는 아마도 그가 세상을 이해하는 기초를 완전히 파괴했다면 무엇을 얻었을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칸트의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종교에서 빼앗긴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이성에 대한 그의 엄격한 비판을 감안할 때, 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칸트는 옛날 기준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도덕적 의식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이 의식을 설명하는 신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었습니다. 칸트의 결론은 어색하게 모호했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선구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을 설명할 때 우리는 신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이성의 범위를 넘어선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본질적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적 영역에만 접근할 수 있으며,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각인을 그 위에 찍습니다.

우리는 감각으로 인식하는 대로 그것들을 압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것들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회의주의이며, 특히 신성한 지식과 관련된 회의주의입니다.

알아요? 바울도 그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눈은 보지 못했고 귀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 고린도전서 2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을 직접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신이 자신을 계시했으며, 성경은 신으로부터의 계시라고 주장합니다. 전립선 자유주의는 칸트와 프로이트 사이의 시기에 크게 번성했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과제를 조금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프로이트는 칸트가 이 도덕적 의식에 대해 말했던 순진함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도덕성은 단순히 사회가 의식의 표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지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형성하는 인위적인 장벽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덕적 감각은 우리의 본성과 사회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물론 20세기에 흘러들었습니다. 칸트의 사상은 그 자체이며 사실상 모든

현대 인식론의 기초인데, 경험을 마치 물질인 원자로 구성된 것처럼 취급하는 과학적 사고 습관에 쉽게 굴복했습니다.

경험은 분리되고 고립된 단위로 분해되어 원자가 원자에 미치는 것처럼 경험하는 주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러셀, 비트겐슈타인의 많은 부분, AJ 아이어와 대부분의 현대 언어 철학에 적용되는 가정입니다. 그 후 자아의 비슷한 해체가 빠르게 뒤따랐습니다.

그것 역시 원자론적으로 취급됩니다 . 사실, 그 과정에서 사상가들은 그것이 원자가 움직이고 변화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인식합니다. 자아의 해체, 특히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의미의 해체는 의미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세기에 우리는 니체의 슈퍼맨들이 부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좌파와 우파의 독재자였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가치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체주의적 통치를 강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경험과 경험하는 주체는 해체되었고, 그들의 자리는 역사에서 생겨나 예정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둡고 비인격적인 세력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상황에 대해 가장 강력한 항의인 실존주의는 여전히 인간 본성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과 부분적으로 동맹을 맺었을 때 이 최종 결과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운동은 여러 다른 사상 학파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이들은 주로 한쪽에는 쉐라이어마흐주의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의례의 지지자들, 아돌프 하르낙이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웰스는 이러한 학파들 간의 차이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리칠리안(Ritschlians)은 말하기 어렵지만, 알브레히트 리칠의 추종자들과 하르낙의 추종자들은 쉐라이어마흐가 자유주의적 개신교의 대표자로 여겨진다면 부당하게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주요 지지자들은 워싱턴 글래든(Washington Gladden)과 월터 라우센부시(Walter Rauschenbu

sch)와 같은 사람들 이었는데 , 이들은 자유주의의 공리를 수용했지만 종종 이를 사회 활동주의와 연관시켰다.

슐라이어마허는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확립한 방법 때문에 현대 신학의 아버지로 정당하게 불린다. 칸트가 종교적 예측은 도덕적 의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슐라이어마허는 도덕적 의식을 종교적 의식으로 대체했다. 그는 모든 사람 안에 절대적 의존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는 이것을 명확히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 존재가 완전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독교 신학에 의해서만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슐라이어마허에게 있어서 역사적 예수 안에서의 신의 계시는 그의 신학의 유일한 지배적인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신앙의 의미를 형성하고 개혁해야 하지만, 그는 신앙을 독점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바르트의 분노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이 주장이었습니다. 슐라이어마허에게 모든 종교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가장 많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훌륭한 대표자입니다.

그에게서 도덕 의식은 가장 예민했지만, 그는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는 하나님과 창조주의 질서 사이에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 연속된 단순한 사람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단절과 연속이라는 구별은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해서 교부들의 그리스도론은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불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신학은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변형과 기타 등등과 뉘앙스가 있습니다. 슐라이어마허가 그의 신학의 일반적 관계에 대해 완전히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운영 가정이 낭만주의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이러한 가정은 그를 초기 그리스 신학과 일치시켰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 모든 인간 본성이 신성의 자연스러운 수용기이며, 신성도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인간에게 주입되고 스며든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 본성은 그것이 가리키는 만큼 성사적입니다. 신성은 인간 본성 안에서 그리고 인간 본성을 통해 스스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성에 집중하고,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복종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삶 속의 신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타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신의 의식에 대한 가장 큰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성함 덕분에 우리는 아담의 순수함을 반영하는 우리 자신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쉘라이어마허의 위대한 저서인 기독교 신앙, 체계적 신학에서 특별히 그리스도론적인 초점은 놀라울 정도로 간략합니다.

쉘라이어마허가 초기 사상가들을 괴롭혔던 문제들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했던 것은 바르트가 이끄는 신정통 학자들로부터 나중에 쏟아지는 비판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는데, 바르트는 교수가 되자 매년 쉘라이어마허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다. 그는 그것을 하르나크의 자유주의와 함께 적대시했다.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그러한 것에 반대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신정통주의를 가졌다.

개혁가와 청교도와 동등하다고요? 아니요. 하지만 여러 면에서 옛 자유주의나 쉘라이어마허의 낭만주의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분명히 쉘라이어마허는 예수를 신의식의 완벽하고 궁극적인 본보기, 절대적 의존의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이는 그의 독일어 단어의 영어 번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고, 예수는 그것을 최고로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기립니다. 예수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킨 것은 그의 인간성이 아니라, 인용하자면, 그의 신의식의 끊임없는 힘, 즉 그 안에 있는 신의 진정한 존재였습니다. 인용문 닫기.

슐라이어마허는 “절대적으로 강력한 신의식”을 “그 안에 있는 신의 존재”와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육신으로 이해한 것을 나타냅니다. 신의 육신은 이 사람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한 그의 압도적인 자기 소통이었습니다.

슐라이어마허는 이것을 범신론과 구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신이 모든 것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서만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한 사람, 즉 예수에게만 그런 궁극적인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신의 의식은 실제로 신의 존재라고 불릴 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충분히 집중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 신의 의식이 “존재”였고, 이런 의미에서 그는 독특했습니다. 슐라이어마허가 보편화된 종교에 대한 계몽주의적 개념과 그리스도의 독특성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을 결합하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슐라이어마허는 인간적인 것, 역사적인 것, 실례합니다, 그는 두 본성, 신성과 인간성이 한 인격으로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되어 하나의 그리스도라는 것과 같은 역사적인 그리스도론적 진술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상의 삶의 기간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것이 과거로 확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성과 인간성을 모두 설명하는 데 같은 단어인 자연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꼈고, 이것이 과거의 모든 혼란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본성 교리의 폐지는 신학적 명확성을 위한 조건이었고, 그는 삼위일체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슐라이어마허는 인격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호의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절대적 의존의 느낌을 그의 신학적 규범, 그의 규범화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독교 신학에서 사람들의 신의식의 일반적인 경험이 아닌 삼위일체는 그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천국과 지옥의 부록으로 놓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제 말은 여기 천재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진실에서 벗어난 천재입니다. 술라이어마허는 또한 비위격적 연합의 지지자들 중 일부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즉, 예수의 인성은 마리아의 태중의 말씀과 결합된 하이픈 인격으로 존재하는데,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모든 면에서 충만했지만, 그 인격 밖에서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인간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선언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불완전하고 모호한 신의식의 싹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인간적 발전의 아주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강력한 신의 의식으로부터 인용문이 있었습니다. 오, 맏소사. 인용문 닫기.

따라서 신의 영향력에 대한 인용문은 인간 본성에 나타났고, 동시에 인간 의식 속에서 신이 육화되고 인간 본성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형성되는 것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인용문 닫기. 이러한 발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약성서 이야기도 교리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는 경건한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종교적 충동을 느꼈고,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문화 혐오자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읽었고, 그의 생각은 커피숍 등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더 전통적인 것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루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고백적인 지루함, 엄격함, 그런 종류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생각은 자극적이고 자극적이며 창의적이었고, 불행히도 이단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본성들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었는가? 술라이어마허는 신성은 활동적이어서 인간성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인간은 수동적이어서 신성에 의해 채워지고 지시를 받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idiomatum*, 속성의 전달은 교리 체계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적 특성을 인간 본성에 전달하거나 인간적 특성을 신적 본성에 전달하면 본질적인 특성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논쟁할 것을 보시게 될 텐데, 성경 자체가 속성의 소통을 가르친다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즉, 그것은 한 문장으로 그리스도의 한 인격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의 신성한 본성에 속하는 칭호와 그의 인간적 본성에 속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교부들은 이것을 알아했습니다.

가장 호기심 많은 전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과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님, 또는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신성한 칭호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신과 관련이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인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들 이 육과 피를 취하여 죽음을 통해 악마를 물리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입은 아들을 영광의 주님으로

말하고 그에게 필멸성을 부여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필멸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속성의 소통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칭호로 명명된 사람과 인간적 특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술라이어마허가 반대하는 것은 루터교의 속성 전달에 대한 이해이며, 이는 개혁주의의 이해와 매우 다릅니다. 루터 자신은 성찬의 이유로 가르쳤습니다. 만찬에서 요소와 함께 그리고 요소 아래에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을 갖기 위해 루터는 부활에서 신성한 속성이 예수의 신성에서 그의 인성으로 전달되어 그의 인간 본성이 편재하거나 무소부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칼빈은 루터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는 루터를 종교 개혁의 사도라고 불렀고, 그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루터가 한 일을 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지점에서 틀렸고 칼빈은 내가 말한 의미에서 본성의 소통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즉, 그것은 특이한 성경적 방식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는 6개의 장소가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생명의 말씀은 신성한 칭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고, 듣고, 그들의 손이 생명의 말씀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그리스인이라면 이걸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쳤어요.

당신은 신을 만질 수 없고, 실제로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진 신인 (God man)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술어는 감각에 민감하고, 보이고, 들리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신성한 칭호인 생명의 말씀으로 불리는 자에게 부여됩니다.

성경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일체성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성경은 그를 신이라고 부르지만, 그다음에는 신에게 인간을 돌립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술라이어마허가 거부하는 것
 , 루터교의 이해이고, 저는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루터교도들이 성경을 믿는 칼빈주의자들과 함께 개혁된, 개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공통된 고백적 유산과 그런 종류의 것을 감사히
 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 지점에서 저는 루터교의 관점이 아닌
 속성의 전달에 대한 개혁된 관점을 분명히 취합니다. 그러나
 술라이어마허는 속성의 전달은 교리 체계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특성을 인간 본성에 전달하거나 인간적
 특성을 신성한 본성에 전달하면 본질적인 특성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인간과 다를 것이고, 신적인 것은 신적인 것보다 덜할
 것이다. 술라이어마허가 실제로 제시한 것은 성육신의 교리라기보다는
 영감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예수를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신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보는 관점이었다.

보세요? 만약 당신이 절대적으로 아래에서 시작한다면, 당신은 정통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신격화하고,
 내주하고, 힘을 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완전하게 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시대의 가장 현대적인 신학에서,
 예수의 신격화는 자유주의자들, 개신교와 가톨릭이 모든 인간의 운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술라이어마허는 전통적인 공식화에
 내재된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그는 신성한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사이의 관계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본성과 그것들이 결합된 단일한 인격 사이의 관계를

공식화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강력한 신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론에 대한 즉각적인 이득은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심각한 손실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술라이어마허는 예수가 얼마나 독특한지 말하는 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신의식은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현대 신학의 아버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오도했습니다. 예수는 인간 속에 있는 신성의 독특한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론은 진정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이미 존재했던 것의 완벽함일 뿐입니다. 창조와의 연속성, 알겠죠? 신과 창조된 질서 사이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론 전체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도 그렇게 해서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술라이어마허가 그를 신의 설명자, 신의 탁월함을 설명하는 자로 본 것은 사실이며, 결국 중요한 것은 관념이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관념이지 그것을 표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념과 그 존재가 기록되는 의식은 공통된 인간 소유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라이어마허는 교양 있는 열심자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들은 그것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따라서 술라이어마허의 신학은 인간 삶에 대한 19세기의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훌륭한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도적 증언의 본질과는 크게 어긋났습니다.

이 지점에서 술라이어마허는 신정통 사상가들에 의해 책임을 져야 했고, 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인물은 알브레히트 리첼입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론 교과서에서 그에 대해 거의 찾을 수

없지만, 그것이 무언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술라이어마허를 제외하고는 매우 간략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현대 신학에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글은 1930년에 루이스 베르코프가 쓴 것입니다. 알브레히트 리첼보다요.

오버헤드에서 철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론은 그리스도의 인격보다는 작품에서 출발점을 취합니다. 강조점이 있고, 심지어 후기 신학에서 더욱 과장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어떤 그리스적 추상 방식으로, 본질과 본성, 인격, 그런 종류의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적인 그리스도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본질과 그리스 용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예수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사람이 아닌 일로 시작합니다. 잊기 전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약이 기능적 그리스도론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신약이 또한 기능적 삼위일체론을 제시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의 존재와 인격, 그런 종류의 것에 대해 추상적으로 추측하지 않지만, 기능적 그리스도론과 기능적 삼위일체론 뒤에는 존재론적 그리스도론과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때때로 아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적 본성의 정확한 표상입니다. 그리스어 단어, *apostasis*. 그리스도론적 인구 조사에서 사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용되었지만, 그 단어는 본질, 본질적 본성,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것의 정확한 표상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것, 본질, 보통 기능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는 기능에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의 증거를 단순한 기능주의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폄하하는 데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의 인격의 존엄성을 결정합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론을 절대적으로 아래로부터 감지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자유주의입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옛 자유주의는 근본주의를 공격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고, 나는 근본주의의 모든 측면을 옹호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학교를 이겼다. 근본주의자들은 성경 학교로 맞섰다.

그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장악한 교육 기관과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는 꽤 잘 해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 신학 대학 협회는 자유주의 학교보다 복음주의 학교가 더 많을 수 있으며, 그 중 많은 학교가 학문적으로 훌륭하고 유능합니다.

학문적으로 유능한 자유주의 학파가 여전히 있지만, 자유주의는 근본주의를 공격하는 데 바빴고, 어떤 면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었지만, 다른 면에서는 신앙의 근본을 부정했습니다. 근본주의는 여기서 이름을 얻었고, 여기에는 동정녀 탄생, 예수의 신성과 기적, 피의 속죄, 그의 재림이 포함되었으며, 그것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근본주의적 설명을 옹호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표현한 진리는 아무리 좋은 나쁜 성경적 진리였고, 자유주의는 그러한 진리를 거부하는 데서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는 알브레히트 리츨에게 단순한 인간이었지만, 그가 이론 업적과 그가 베푼 봉사를 고려할 때, 우리는 그를 신격의 술어로 정당하게 여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다음 문장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버크호프가 설명했듯이, 이것도 루이스 버크호프의 체계신학 310 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리츨은 선재, 성육신을 배제하고,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 정통,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의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슬라이어마허는 개인의 신앙 의식, 그의 인식론에서 의식이 더 공동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왕국의 창시자이셨으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 사랑으로만 동기를 부여받는 삶을 살도록 유도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 모범, 독특한 영향력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모달리즘으로 알려진 초기 이단자, 안식일의 바울의 교리를 갱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르침, 모범, 그리고 독특한 영향력으로 구속하신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는 느낌이 있지만, 가장 심오한 것은 그가 죄인 대신 죽으시고 성경에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자유주의는 실제로 자유주의이며,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대 그리스도론에 관한 우리의 다음 강의에 대한 미리보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Bart Bruner, 우리가 아마 조금 논의할지도 모르지만, Bultmann은 처음에 오래된 자유주의 전통과 강한 단절을 나타냅니다. Bultmann은 그 후 자신의 실존적 방향으로 갔고, 그와 Bart는 정말로 엄청나게 의견이 달랐지만, 그들은 오래된 자유주의적 내재론을 거부하고 실제적인 화신으로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볼트만 주의자들이 지배하던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복음주의 학생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목회를 준비하려고 거기에 갔나요? 네, 선생님.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연합장로교회 내에서 진실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고, 그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프린스턴이나 공인 신학교 중 하나에 가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나 언약이나 개혁신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의 유물에서 당신은 무엇을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 주제에 대한 볼트만의 신약 교수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과정을 고안했습니다. 오, 제 말씀입니다. 환원주의는 엄청나고, 볼트만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그들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Gunther Bornkamm , Ernest Kasemann ,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시작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제 말은, 모든 게 너무 왜곡되어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건 그의 사업보다 나왔지만, 세상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더 최근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바르트는 20세기의 지배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그랬지만, 그 말기에는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와 위르겐 볼트만이라는 두 독일 신학자가 매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론을 살펴볼 것입니다 . 그들은 확실히 볼트만의 그리스도론보다 낮고, 어떤 면에서는 정통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몇 로마 가톨릭 사상가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한스 쿤은 스스로를 얻었고,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그는 교황의 무오성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독일 튀빙겐에서 더 이상 공식적인 가톨릭 교리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리스도론과 칼케돈, 실례합니다, 바티칸 2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큰 영향을 미친 뛰어난 실존주의 로마 가톨릭 신학자인 칼 레이너의 그리스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맙소사, 그건 프로이트식 실수였고, 대단한 순간이었습니다. 레이너는 60년대 중반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영향을 미쳤고, 가톨릭 교회의 방향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 경제적 삼위일체가 내재적 삼위일체, 존재론적 삼위일체, 그리고 익명의 기독교에 대한 그의 개념, 가톨릭이 이제 보편주의를 바라는 것에 비추어 그의 그리스도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국의 주교 JAT 로빈슨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정통 신학 학자로, 그의 책 *Honest to God*에서 모든 종류의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모든 종류의 것을 부인하면서 평범한 영국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정 신학자의 그리스도론을 간략히 살펴볼 것입니다.

피텐저는 실제로 그것을 쓴 유일한 사람이고,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영국 국민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프레젠테이션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의 성육신 신화.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의 유명한 교수들은 성육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같은 해에 작가, 역사가, 여러 권의 편집자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이것 거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해에 복음주의자들이 *The Truth of God Incarnate*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자의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신의 진리가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다룰 내용 중 일부이지만, 그동안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강의를 하는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6, 현대 그리스도론, 1부, 칸트, 술라이어마허, 리출입니다.